

‘슈베르트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온다

ACC, 10월23일 초청 공연
뉴욕카네기홀 상주음악가
슈베르트 곡 깊은 표현력 명성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 협연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 <ACC재단 제공>

영국의 성악가 이안 보스트리지는 독일 가곡 해석자이자 가곡에 전착해 온 ‘슈베르트 테너’ 중 하나다. 1993년 영국 위그모어 홀에서 데뷔한 이래 그라모폰 베스트 솔로 보컬상(1998), 솔로 보컬상(1996), 내셔널 음악협회 예코상(1991) 등을 휩쓸어 왔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에서 성악가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현재는 뉴욕 카네기홀과 런던 바비칸센터에서 상주 음악가로 활동 중이며, 슈베르트 곡에 대한 깊은 표현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ACC 슈퍼클래식 두 번째 무대 ‘이안 보스트리지와 랄프 고토니의 겨울 나그네’를 10월 23일 오후 7시 30분 ACC 예술극장(극장2)에서 펼친다. 오는 23일(오전 10시)부터 ACC재단 누리집에서 예매.

이번 공연은 슈베르트가 1827년 빌헬름 필러의 연작시에 곡을 붙여 만든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모티브로 펼쳐진다. 보스트리지는 이 작품으로 폴로제 리프 쿠퍼상을 수상할 만큼 조예가 깊다.

연가곡 ‘겨울 나그네’는 실연당한 청년이 죽음의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악곡에 녹여 낸 작품이다. 1827년 이 곡을 완성할 당시 슈베르트는 불과 서른 살이었으며 1년 뒤 사망했다.

그런 연유에서 초연은 슈베르트가 사망한 뒤 슈베르티아데(슈베르트와 음악적 동반자들이 함께 했던 음악회) 일원이던 바리톤 요한 포클에 의해 성사됐다.

필러의 작품을 가사에 차용했던 전작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와 달리, ‘겨울 나그네’는 가곡

하나하나가 연결된 플롯 없이 개별성을 지녔다. 보스트리지는 이 곡에서 실연당한 청년이자 관조자, 내레이터 역할 등을 맡아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해 온 랄프 고토니가 피아노 연주자로 협연할 예정이다. 그는 오스트리아 문화부에서 ‘슈베르트 메달’을 받은 이력이 있어 슈베르트 연가곡의 진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곡에서 보컬 전후에 붙는 피아노 반주가 복잡한 나그네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기에, 이번 공연에서도 고토니의 피아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CC재단은 지난 3월 ‘2024 ACC 슈퍼클래식’ 일환으로 노부스 콰르텟 공연을 펼친 데 이어, 오는 12월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을 계획하고 있다.

ACC재단 오채환 문화예술사업팀장은 “가곡의 왕’이라 불리는 슈베르트의 연가곡을 이안 보스트리지의 감미로운 미성, 랄프 고토니의 아름다운 선율로 감상하는 흔치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이번 공연이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 관객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하는 매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감성 장인들 월출산 아래 버스킹

영암월출마을관리협동조합 24일 개최... ‘어디든 프로젝트’ 공연



‘어디든 프로젝트’ 공연 장면.

<영암월출마을관리협동조합 제공>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일이면 나는 여기 없을지도 모르니까”

영암월출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이 ‘월출산 아래 콘서트: 달 뜬 밤에 제2권’이라는 제목으로 버스킹 콘서트를 펼친다. 오는 24일 오후 7시 달마지복지센터 야외무대.

월출산 아래 콘서트는 영암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통해 영암 수제맥주 페스티벌과 맞물려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연 100회 이상 거리공연을 진행해 온 ‘어디든프로젝트’가 출연해 여름밤 하늘을 음악으로 수놓는다. 윤승연(보컬), 조성천(기타), 김인권(베이스), 조안(드럼) 4인조로 구성된 이들은 흥대 등 전국에서 활약 중인 버스킹 밴드다.

어디든프로젝트 윤승연 보컬은 “월출산 아래서 펼쳐지는 공연이라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다”며

“영암주민, 여행자들이 맡겨 에너지를 발산하는 멋진 공연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발표한 싱글앨범 ‘사랑하다 말해줘요’ 수록곡을 비롯해 대중가요와 팝송 등을 편곡해 들려줄 예정이다. 밥 딜런의 ‘노킹 온 해븐스 도어’,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와 한영애의 ‘누구없소’ 등 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 밖에도 신촌블루스의 ‘골목길’, 들국화 곡 ‘매일 그대와’ 등 익숙한 노래들이 레퍼토리에 있다.

영암월출마을관리협동조합 조정현 이사장은 “지난 7월 첫 행사를 진행했을 당시 관객 500여 명이 동원되고 일대 속소가 매진되는 등 지역이 활기를 되찾았다”며 “월출산을 배경으로 하는 감성 가득한 음악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야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지위 격하 철회하라”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전환 입법예고... 지역 문화단체 반발

정부가 대통령 소속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하자 지역 문화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등 지역 시민문화단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에 따라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조성사업)의 중요사업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조성위원회)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아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36개 시민문화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아특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란다고 밝히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지역사회와 문화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가 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운운하며 아특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점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사업의 공동 주체이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시와 시민사회와의 최소한의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위원회를 격하시키는 입법을 예고했다는 것”이라며 “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되었던 아특법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혔다.

문화단체는 조성위원회의 지위 격하에 따른 사업의 동력 약화, 정부 예산의 반영 불확실성 증대를 비롯해 정부와 광주시, 지역사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는 조성사업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슴 아릿한 ‘순애보’

전직 언론인 김용옥 작가, 장편 ‘메아리 사랑’ 펴내

청소년 시절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언론계로 방향을 전환했던 언론인이 최근 소설을 펴냈다. 저자는 청소년기부터 소설을 쓰기 위해 고전과 현대 소설을 읽었지만 문학의 길로는 가지 못했다.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부장을 역임했던 김용옥 전 광주일보 부국장이 장편 ‘메아리 사랑’ (동산문학사)을 발간했다.

소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주제로 한다. 젊은 시절 이성을 향한 감정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법이다.

이번 소설은 저자가 이전에 수필로 발표했던 글에서 주인공 민호의 이야기로 먼저 소개된 바 있

다. 지난 2010년 대략의 일개를 잡은 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소설로 완성됐다.

주인공은 모두 네 명. 잡지사 편집장이자 대학 강사인 민호, 보험회사 내근사원인 박희주, 영문학 조교수인 올드미스 서지은, 중학교 미술 교사인 한설애가 등장한다.

저자는 환경에 얽매어 병마로 메아리처럼 사라진 민호, 그를 사랑하지만 안기지 못하는 희주, 첫 사랑에 실패해 삶의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두 여성들의 삶을 그렸다. 작품 제목을 ‘메아리 사랑’이라고 붙인 것은 저마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주는 허망함과 허탈감 때문인 듯하다.



저자는 “지금의 잣대로 보면 낡은 사랑 이야기라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도 나는 그러한 사랑을 그려보고 싶었다”며 “아날로그 방식, 어쩌면 순애보 같은 사랑이 내 의식 저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가답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옥 시인은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부장, 광주대 신방과 겸임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 제44대 광주시 초교과 장로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크리스천 문학 신인상(수필 부문)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